

카카오, SM지분 4.91% 확보 이어 '15만원 공개매수' 선언

지난달 28일 66만6941주 사들여 '기타법인' 대량매수 종목과 일치

카카오, 35% 지분 추가확보 계획 "SM엔터와 안정적 파트너십 위해 최대주주 지위 확보 불가피 판단"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두고 하이브와 격돌 중인 카카오가 반격에 나섰다. 최근 장내매수를 통해 4.91% 가량의 지분을 확보한 데 이어 하이브보다 높은 가격에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1대 주주에 오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7일 카카오가 제출한 에스엠 공개매수 신고서에 따르면 카카오와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에스엠 주식을 각각 78만주(3.28%), 38만7400주(1.63%) 총 116만7400주를 보유하고



밝혔다.

앞서 에스엠의 주식을 대량매집한 '기타법인'은 카카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달 28일부터 장내매매를 통해 지분을 늘려왔다.

특히 카카오가 지난달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날인 지난달 28일 카카오에 서만 66만6941주를 확보했으며, 이는



한국거래소가 '기타법인'의 대량매수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밝힌 수량과 일치한다.

다만, 또 다른 대량매집일인 지난달 16일에 65만주를 매수한 기타법인은 카카오가 아니었다. 앞서 하이브는 해당 일 특정계좌를 통해 대량 매수가 이뤄졌으며 시세조종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성서를 제출

한 바 있다. 금감원은 에스엠 주식 대량매집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슈가 되고 있는 대량 매집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카카오의 대량매집 역시 포함"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는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기존 보유지분에 더해 35%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 총 39.9%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약 1조 2516억원의 자금을 활용해 각각 416만 주 가량을 주당 15만원에 매수할 예정이다. 카카오 측은 "SM엔터와의 파트너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에스엠의 오리지널리티를 존중하고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공개매수 소식과 함께 에스엠의 주가도 공개매수가에 근접하게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스엠 주가는 이날 전일 대비 1만9600원(15.07%) 오른 14만7700원에 장을 마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현 이사진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공개매수 지지를 표명했다. 에스엠 엔터 측은 "적대적 M&A를 통해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하이브와 달리, (카카오는) SM 고유의 전통과 정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독립적 운영과 아티스트의 연속적·주체적 활동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1일 열리는 주총에서 독립적 이사회를 지지하는 카카오가 SM 3.0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최적의 수평적·전략적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금리 고점?... 서학개미, 美 ETF '줍줍'

해외주식 Click

예탁결제원, 순매수 1위 종목 TMF 3041만 달러 사들인 TQQQ 2위

미국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월 배당 상품과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관련주도 대거 순매수했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2월 27일~3월 5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20+ 이어 트레저리 볼 3X SHS ETF(TMF·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S ETF)로, 3425만달러가 몰렸다. TMF는 미국 20년물 국채 3배 레버리지 상품이다.

서학개미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TMF를 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TMF는 미국 장기채지수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미국 국채 가격

이 오르면 3배로 수익을 내는 구조다.

단, 여전히 시장은 기준금리가 5%에서 6%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가능성은 69.4%, 0.50%p 인상은 30.6%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TMF도 지난 1개월간 13% 가까이 주가가 하락한 상태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3, 5, 6월 FOMC에서 각각 25bp(1bp=0.01%p) 금리 인상 후, 5.25~5.50%를 최종 정책금리의 종착지로 연말까지 유지하는 것을 예상한다"며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채권 ETF인 아이셰어즈 20+ 이어 트레저리 본드 ETF(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도 1118만달러가 유입되며,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TLT는 미국 20년물 장기 국채 가격을 추종하는데, 미국에 상장된 장기채권을 다루는 ETF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자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 상품에도 서학개미들의 자금이 몰렸다.

제이피모건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JEPI·JP 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와 슈왁 미국 배당주 ETF(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에는 각각 2015만달러, 929만달러의 순매수세가 이어졌다.

JEPI는 미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월 배당 ETF로 해당 주식에 대한 콜옵션(주식을 일정 금액에 살 권리)을 매도해 주가 하락 위험에 대비한다. SCHD는 미국 고배당 성장주에 투자한다.

챗봇 관련주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주에 대해서는 2주 연속 매수 기조를 이어갔다. 1931만달러, 1094만달러씩 유입됐다.

알파벳은 최근 AI 챗봇 바드(Bard) 출시를 예고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주요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검색엔진 Bing과 웹브라우저 에지(Edge)에 챗GPT를 탑재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개월째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서울 아파트 거래량 2개월째 1000건 돌파

정부 1·3대책 이후 매수심리 회복세 2월 거래 1658건, 8개월 만에 최고치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개월 연속 100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정부의 1·3대책 발표 이후 급매물 위주로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매수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이 서서히 효과를 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까지 집계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신고 건수는 1658건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1월(1417건) 대비 17.0%(241건) 증가했다. 지난해 7월(648건)을 시작으로 12월(836건)까지 6개월 동안 1000건 아래로 떨어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1000건을 넘어선 것.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내인 만큼 실거래 등록 기준일이 지나지 않은 거래들이 추가로 등록될 것을 감안하면 2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집값이 크게 떨어져 급매물에 수요가 몰린 지역 위주로 거래량이 많았다.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거래된 지역은 송파구(166건)였고, 강동구(145건), 노원구(132건)가 뒤를 이었다. 해당 지역들은 1·2월 연속으로 100건 이상 매매가 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정부의 1·3대책 이후 송파구와 강동구, 노원구 등에서 거래가 많이 늘었다"면서 "송파구의 경우 신축을 중심으로 투자 목적으로 산 경우가 많아 세금 등 여러 규제에 의해 급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격 하락세는 둔화하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4%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26%)보다 0.02%포인트 축소되면서 3주 연속 하락폭이 줄었다.

시장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완화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폐지, 주담대 전환의 경우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1년),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주담대 대출한도 6억원 기준 폐지 등 부동산 규제완화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거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매물 중심의 간헐적 거래일 뿐 거래량이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구매 심리가 본격적으로 살아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접어들면서 계절적 요인에 의해 거래가 늘어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더 쌓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젼백스링크의 전자투표 미실시, 소액주주 주총 막는 '꼼수'"

경영정상화비대위, 표대결 예고

코스닥 상장사 젼백스링크가 이번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젼백스링크 경영정상화비대위는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막으려는 '꼼수'라며, 우호지분 확보를 통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7일 젼백스링크가 주주들을 상대로 발송한 서신에 따르면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제는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지난 2017년 이후 6년간 주총에서 채택한 전자투표제를 올해는 실시하지 않

는다.

통상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주총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측은 주주들의 손쉬운 의결권 참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전자투표제를 실시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원활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주주들의 의결권 참여기회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김상재 젼백스링크대표 등 현 경영진 교체에 동참하는 우호지분을 17%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젼

백스링크로부터 주주명부를 입수해 본격적인 위임장 대결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비대위는 "지난 2일 법률자문 로펌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가 젼백스링크를 방문해 인쇄물 형태의 주주명부를 수령했고 엑셀파일 형태로 입력을 마치고 의결권 수거업체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공동보유를 통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주주간계약에 동참한 지분 8.7%를 포함해 비대위가 상정한 주총회 안건을 지지하는 지분이 17%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박미경기자